

2018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최종 보고서

2018. 1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

목 차

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소개	3
1. 2018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요	5
2. 준비 과정	6
1) 프로그램위원회	6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7
3) 사무국	9
3. 프로그램	10
4. 행사 평가	21
1) 참석자 통계	21
2) 만족도 조사결과	21
3)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23
5. 결산	26
6. 사진	27

별첨 1.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별첨 2. 워크숍 세부 내용 및 논의 사항

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소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 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개최 국가를 달리하며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IGF는 단순히 정책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터넷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권고' 등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IGF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2012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왔으며 2018년에 7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다자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세계 IGF에 국가인터넷거버넌스포럼(National IGF)으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2018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세계 IGF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KIGA 사무국

(Tel. 02-3446-5934, E-mail. kiga_sec@koics.or.kr)

1. 2018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요

- 주 제 :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투명한 거버넌스
- 일 시 : 2018년 7월 5일(목), 09:30~17:00
- 장 소 : 서울창업허브(공덕역), 대강당, 세미나실1,3,4, IR 미디어룸
- 주 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 주 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창업허브,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네이버, 가비아, 우아한형제들, 사이버커먼스, 사단법인 오픈넷, 법무법인(유) 한결, 진보네트워킹센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인권연구소,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단법인코드, 카카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GP3 Korea (총 18개 기관)
-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이버, 가비아, 법무법인(유) 한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5개 기관)
- 홈페이지 : www.krigf.kr
- 참석인원 : 195명(사전등록 169명/410명(87%), 현장등록 26명(13%))
 - 학계 28명(14%), 산업계 48명(25%), 시민사회 22명(11%), 기술계 11명(6%), 공공계 26명(13%), 일반이용자 60명(31%)

2. 준비 과정

1) 프로그램위원회

-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 2018년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오병일(위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사회
 -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시민사회
 - 박지환, 오픈넷, 시민사회
 - 박복남, 시민사회
 - 이창범, 김앤장 법률사무소, 시민사회
 - 최은창, Free Internet Project, 학계
 - 안정배, 사이버커먼즈, 학계
 - 강호영, 고려대학교, 학계
 - 조성덕, 성균관대학교, 학계
 - 박미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계
 -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계
 - 이동만, KAIST, 학계
 - 오익균,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기술계
 - 연주환, 카카오, 산업계
 - 이상협, 네이버, 산업계
 -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산업계
 -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업계
 - 김태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
 - 박민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
 -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부
 - 박신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 2018년에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고 행사 준비를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과 회의 결과는 [별첨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8일 : 2018년 프로그램위원회 1차 회의
 - 2018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구성 확인
 - 2018 KrIGF 준비 일정 검토
 - 2018 KrIGF 일정 및 장소 협의
 - 위원들이 행사 준비 역할 분담(세션 공개 모집·평가 파트, 기획 세션 구성 파트)을 하기로 함.
- 2월 22일 : 프로그램위원회 2차 회의
 - 위원별 역할 분담
 - KrIGF 장소 후보지 검토
 - KrIGF 주제 (전체주제, 기획세션, 워크숍, 튜토리얼) 설문 결과 검토
- 3월 30일 : 프로그램위원회 3차 회의
 - KrIGF 장소 확정 : 서울창업허브
 - KrIGF 서포터즈 운영 방안 검토
 - KrIGF 프로그램 구성 방안(트랙구성 및 기획세션 등) 논의
- 3월 19일~4월 22일 : 워크숍 공모 기간
- 4월 24일~26일 : 제안된 워크숍 평가
- 4월 27일 : 프로그램위원회 4차 회의
 - KrIGF 일자 및 장소 확정
 - KrIGF 워크숍 보고서 및 영문번역 견적 공유

- KrIGF 공동주관 및 후원 요청 논의
 - 인터넷 생중계 방안 논의
 - 제안된 워크숍 및 KrIGF 프로그램 검토
 - KrIGF 슬로건 논의
- 5월 18일 : 프로그램위원회 5차 회의
 - KrIGF 프로그램 검토 (워크숍 및 트랙, 튜토리얼 등)
 - KrIGF 생중계 방안 논의(계속)
 - 공동주관 및 후원 진행상황 검토
 - 패널 참석비 지급 관련 논의
 - KrIGF 슬로건 논의
 - 지역, 국가별 IGF 협력 방안 논의
 - KrIGF 홍보 방안 논의
 - 서포터즈 운영 방안 논의
- 6월 15일 : 프로그램위원회 6차 회의
 - KrIGF 프로그램 확정
 - KrIGF 개회사 및 축사 검토
 - 공동주관 및 후원 확정
 - 서포터즈 모집 진행상황 검토
 - 생중계 및 홍보 방안 검토
- 7월 5일 : 행사 개최
- 7월 13일 : 프로그램위원회 7차 회의
 - KrIGF 결과 보고
 - 행사 평가

3) 사무국

- 2018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조진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김보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박신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정길원,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김정인,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이시넷가,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김학진,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박유민, 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 최유진, 숭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윤희식, 숭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여윤수, 고려대학교 CLPS
- 박다은,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 유혜민, 서강대학교

3. 프로그램

- 2018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인터넷 경제, 인권, 거버넌스, Tutorial(강좌) 등 4개 트랙으로 9개의 워크숍, 4개 강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트랙 1(세미나실 1)	트랙 2(세미나실 3)	트랙 3(세미나실 4)	트랙 4(IR 미디어룸)	
인터넷 경제	인권	거버넌스	Tutorial(강좌)	
시간		내용		
09:30~10:00		등록		
개회식(대강당)				
10:00~10:45	<input type="checkbox"/> 사회: 안정배 (사이버커먼즈) <input type="checkbox"/> 개회사(인사발) : 이동만(KIGA, 위원장/KAIST, 교수) - [학계] 이영음(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산업계] 차재필(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시민사회]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 [기술계] 오익균(전 KAIST 사이버보안연구센터, 부소장) - [공공계] 이계남(KISA 단장)	<input type="checkbox"/> 축사: 전길남(KIAST, 명예교수), 민병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45~11:00		휴식		
11:00~11:23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안정화를 위한 핀테크&레그테크 <input type="checkbox"/> 사회: 권현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 <input type="checkbox"/> 발제: 박만성(옥타솔루션, 대표) <input type="checkbox"/> 패널: 이시연(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윤식(SBCN, 이사)	누구를 위한 인터넷 검열인가? <input type="checkbox"/> 사회 및 발제: 안정배 (사이버커먼즈)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input type="checkbox"/> 사회: 김경석 (부산대학교, 교수) <input type="checkbox"/> 발제: 김경석 (부산대학교, 교수) <input type="checkbox"/> 패널: 이동만(KIGA, 위원장 / KAIST, 교수), 전용준(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조성덕(성균관대, 교수), 최정도(국립국어원, 연구사), 변규홍(스켈터랩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공지능과 오픈데이터 <input type="checkbox"/> 강의: (인공지능 비서와 오픈데이터) - 엄재홍(SKT, 매니저) (지식베이스와 인공지능 그리고 오픈데이터) - 이명진((주)리스트, 기술이사) <input type="checkbox"/> 토론: 사회: 오원석(사단법인 코드, 이사) 패널: 이명진((주)리스트, 기술이사) 패널: 엄재홍(SKT, 매니저)
	12:30~13:30		점심 식사	
13:30~15:00	사용자 중심의 뉴스 서비스 마태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데이터 거버넌스 : 소셜 네트워크와 프라이버시	가상화폐 <input type="checkbox"/> 발표자: 윤종수(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사회: 김경희(한림대학교 교수) <input type="checkbox"/> 패널: - 김위근(한국언론진흥재단, 박사) -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 강민구(일반이용자) - 한석구(네이버뉴스기사배열 공론화포럼, 사용자)	<input type="checkbox"/> 사회: 김보라미(경실련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패널: - 김기창(고려대학교, 교수) - 김혜숙(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 차재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이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 김종배(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input type="checkbox"/> 사회: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input type="checkbox"/> 발제: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input type="checkbox"/> 패널: - 정명현(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림(네이버 프라이버시&시큐리티 팀, 부장) - 정영훈(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 윤재석(KISA개인정보협력팀, 팀장)	14:30~14:40	휴식
				14:40~15:40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활용 <input type="checkbox"/> 발표자: 이진욱(GP3 Korea, 대학원생)
15:00~15:15	휴식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 : 상호접속기준 고시 문제인가 망중립성 문제인가?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우리가 바라는 미래 사회	15:40~15:50	휴식
15:15~16:45	<input type="checkbox"/> 사회: 박지환(오픈넷,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패널: - 신중현(호스팅도메인협회, 협회장) - 오병일(KriGF위원장,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최민오(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	<input type="checkbox"/> 사회: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input type="checkbox"/> 패널: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 이승현(연세대학교, 박사)	<input type="checkbox"/> 사회: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input type="checkbox"/> 발제: 이동만(KIGA, 위원장 / KAIST, 교수) <input type="checkbox"/> 패널: - 구분권(한겨레신문, 기자) - 김평호(단국대학교, 교수) - 윤정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15:50~16:50	스타트업 <input type="checkbox"/> 발표자: 최성진(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대표)

○ 각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논의 결과는 [별첨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션명	워크숍1.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안정화를 위한 핀테크&레그테크			
일시	2018.7.5.(목) 11:00~12:3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1 (9F)	
참석자	사회	권헌영(한국인터넷윤리학회)	발제	박만성(옥타솔루션)
	패널	이시연(한국금융연구원)		김윤식(SBCN)
요약 내용	<p>인터넷 거버넌스는 1968년 미 국방부 상무부의 주관으로 루트서버(root server), 도메인을 관리하다가 후에 상용화되었다. 인터넷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도메인을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만 있었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규범 및 규제까지도 다뤄지며 UN에서도 논의될 만큼 국제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p> <p>현대화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규제대응(Compliance) 이슈는 금융권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IT대응 과제이며 이러한 규제에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레그테크(Regulation Technology)산업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복잡한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IT기반의 다양한 레그테크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KYC(Know Your Customer)기술' 등을 이용한 자금거래방지가 그 예이다.</p> <p>레그테크는 최신 IT기술에 컴플라이언스가 접목되어야 하는 만큼 핀테크 기술의 전문가가 확보되어야 하는 등의 초기 비용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현재까지도 레그테크를 비용의 측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정책건의를 하고,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레그테크 기반의 준법 대응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p>			

세션명	워크숍2. 누구를 위한 인터넷 검열인가?		
일시	2018.7.5.(목) 11:00~12:3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3 (9F)
참석자	사회 및 발제	안정배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프로젝트)	
	패널	-	
요약 내용	<p>투명성 보고서는 구글이 처음 선보인 것으로 일정기간 내에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기록, 콘텐츠와 관련된 보고서이다. 투명성 보고서를 실시하는 지역이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의 자료를 기초로 인터넷 검열 및 감시 현황을 공유 및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의 인터넷 감시로는 통산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압수수색 4가지 감시제도가 있다. 검열방식으로는 삭제, 사용자계정 중지 및 없앴, 접속차단, 청소년 유해매체물표시가 있고 접속차단이 제일 많은 편이다. 방송통신 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통신소위 위원전문성 문제로 심의범위 및 권한범주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다. 두 번째로는 불법정보 심의 상 문제인데 수사 중 정보 시정요구와 국가보안법 위반사례 기계적 결정이 있다. 세 번째로는 유해정보 심의 상 문제가 있고, 네 번째로 소위 위원들의 소양문제로 근거 없는 선입견 기반 인터넷 이용자 매도가 있으며 다섯 번째로 심의 투명성 문제로 회의안건 및 회의자료 비공개와 녹음, 촬영 허가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p>		

세션명	워크숍3. 한글 및 한자 최상위 도메인 관련 국내 커뮤니티 의견 수렴			
일시	2018.7.5.(목) 11:00~12:3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4 (9F)	
참석자	사회	김경석(부산대학교)	발제	김경석(부산대학교)
	패널	이동만(KAIST)	전용준(법무법인 유미)	
		조성덕(성균관대학교)	최정도(국립국어원)	
		변규홍(스켈터랩스)		
요약 내용	<p>인터넷 자원への 접근을 위한 총체적 이름 체계인 도메인 이름이 영어(로마자)뿐만 아니라 다국어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국어 도메인 이름이 가능해지면서 로마자, 한글, 로마자/한글 혼용, 등이 생겨났다. 비록 영어(로마자) 도메인 이름의 사용빈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빈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어는 한글과 한자로 이루어진 언어이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에도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의견이 생겨 공식적으로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 이름 사용에 대한 제안서를 넘겼으나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실생활에서 한글/한자 혼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과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도메인 주소가 허용될 경우, 혼동하기 쉬운 도메인 주소의 난립과 같은 발음의 도메인주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 한자 입력에 제약이 많다는 점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TLD와 실생활의 언어문화는 무관하고, 도메인의 한자 입력에 많다는 점도 실생활에서는 도메인을 직접 입력하기보다는 연결된 링크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의견도 있다. 크게 보면 도메인 규칙의 틀 상 어려운 점이 많고 사용빈도도 매우 적을 한글/한자 혼용 도메인 이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측과 아무리 소수라도 한글/한자 혼용을 이용해 도메인 이름을 만들고 싶은 곳이 있을 텐데 이런 소수의 의견을 가버이 무시해도 되는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의 대립이고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글/한자 혼용은 세대 간의 언어 사용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서도 논의에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p>			

세션명	워크숍4. 사용자 중심의 뉴스 서비스 미래			
일시	2018.7.5.(목) 13:30~15:0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1 (9F)	
참석자	사회	김경희(한림대학교)	발제	
	패널	윤여진(언론인권센터)	김위근(한국언론진흥재단)	
		민노씨(슬로우뉴스)	한석구(이용자)	
		강민구(이용자)		
요약 내용	<p>현재의 뉴스 서비스 환경은 잘못된 보도의 확대 유통에 용이하며 사람이 뉴스를 편집 및 배열하여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양성을 결여시키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바일 포털뉴스는 편리하며 신속하다는 장점과 동시에 포털이 뉴스를 선별하여 호도하는 문제가 있고,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휘발성이 강한 기사 위주로 배열되는 단점을 갖는다.</p> <p>이에 기존의 뉴스 서비스 환경은 사용자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료화된 뉴스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줄이고 자극적이고 휘발성 강한 뉴스를 줄여 퀄리티 있는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선택성을 높이는 구조로 포털이 개편 및 사회의 소수자들을 다루는 뉴스 또한 포함되는 구조로 변화하여야 한다. 사용자들 역시 포털의 구조에 대해 공부하며, 어렸을 때 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p>			

세션명	워크숍5. 인터넷 본인확인기관 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일시	2018.7.5.(목) 13:30~15:0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3 (9F)
참석자	사회	김보라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제
	패널	김기창(고려대학교)	김혜숙(방송통신위원회)
		차재필(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미루(진보네트워킹센터)
		김종배(서울디지털대학교)	
요약 내용	<p>2012년 2월 금융사 해킹사건으로 개인에 대한 속성정보 칼럼 1000개가 털렸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사용의 위험성에대한 판례가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주민등록 번호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p> <p>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으로 사업체에서 본인확인을 하고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면 그 부분은 사업체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사업체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하는 몇몇 법적조항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p> <p>본인확인기관의 의견으로는 법적으로 본인확인을 해야만 하는 온라인 사업자(성인인증, 실명확인 등)가 있고 그러한 사업체 의외에는 자율적으로 본인확인을 맡기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어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p>		

세션명	워크숍6. 데이터 거버넌스: 소셜 네트워크와 프라이버시		
일시	2018.07.05(목) 13:30~15:00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 4
참석자	사회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발제 최은창(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패널	정명현(고려대학교, 교수)	이재림(네이버 프라이버시&시큐리티팀, 부장)
		정영훈(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윤재석(KISA 개인정보협력팀, 팀장)
요약 내용	<p>소셜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개인의 데이터는 이전보다 훨씬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많이 수집될수록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가 제 3자에게 전달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제 3자가 수집한 데이터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 3자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심사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과 제 3자의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 로그인 이상의 개인정보 제공은 이용자에게 선택권 부여하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립된 의견이 제시되었다.</p> <p>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 다시 말해 데이터 거버넌스의 방안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는 법을 통한 규제이다. 법을 통한 규제에 관해서는 최초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명확한 기준이 담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때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 진정한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데이터 이동성'을 골자로 기업의 무분별한 데이터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유럽에서 시행 중인 GDPR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논의는 GDPR의 데이터 이동성을 국내에 도입할 때의 효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패널들은 애초에 기업 간 데이터가 상호 호환되지 않고 있다는 점, 만약 데이터 이동권이 국내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가공된 정보는 예외라는 점, 그리고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력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이동권 도입이 과연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개인의 주체성을 향상시킬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p> <p>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은 플랫폼의 설계 단계부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재화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가명화조치'와 코딩을 할 때부터 식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코딩하는 'secure coding의 제도화' 등이 제시되었다.</p> <p>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마지막 방안은 바로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인증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기업을 선택하게 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노력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었다.</p>		

세션명	워크숍7.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 : 상호접속기준 고시 문제인가 망중립성 문제인가?		
일시	2018.7.5.(목) 15:15~16:45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1 (9F)
참석자	사회	박지환(오픈넷)	발제
	패널	신중현(호스팅도메인협회)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최민오(시민단체보안컨설턴트)	
요약 내용	<p>인터넷은 독립적으로 운영, 관리되는 수많은 네트워크가 자율적으로 상호접속된 상태이다. 각자의 네트워크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 사용자 특성, 트래픽 규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상호접속의 대상과 방식을 결정한다. 크게 동등계위간 무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직접접속(피어링)과 다른 네트워크에 비용을 지불하는 중계접속(트랜зит)으로 나뉘며, 그 외에 부분 피어링, 하이브리드 피어링, 멀티호밍 등 다양한 방식의 요금정산체계가 존재한다.</p> <p>하지만 국내는 1계위 네트워크에 속하는 대형통신사(KT,LG,SK)가 네트워크를 독점하면서 독점, 수직결합, 담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요금체계또한 생기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고자 2015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2016년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두어 성장한 인터넷 환경에서 계위 생성 및 구분에서부터 정산방식까지 획일적인 방식으로 규정한 상호접속고시 제도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p> <p>특히 기존 동등계위간 직접접속 무정산 방식이 1. 트래픽 양에 따른 2. 발신자 지불의 3. 상호정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 부담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최근 촉발된 페이스북 캐시서버 논란 또한 상호접속제도의 개정에 따라 '발신'트래픽 양에 따라 상호정산하게 된 망사업자들이 정산요금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생긴 일이다.</p> <p>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간 역차별, 해외 콘텐츠 사업자의 무임승차 논란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도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처럼 높은 금액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내 서비스사업자 및 신규 인터넷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p>		

세션명	워크숍8.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		
일시	2018.7.5.(목) 15:15~16:45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3 (9F)
참석자	사회	손지원(오픈넷)	발제
	패널	김보라미(범무법인 나눔)	이승현(연세대학교)
요약 내용	<p>최근 몇 년 사이에 혐오 표현이라는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혐오 표현이 야기하는 문제들이자 해악성은 그냥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들은 현행 법 상으로도 명예 훼손 죄나 모욕죄에 해당하고, 표적 집단의 구성원들의 존엄성이 침해받는다는 것과 공론장의 왜곡, 표적 집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영속적인 불평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혐오 표현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려면 표현의 자유라는 걸림돌이 생긴다. 혐오 표현을 잘 규제할 수 있으려면 혐오 표현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먼저 정한 뒤에 그 사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비하 혹은 폄하 발언을 들은 뒤 듣고 난 후 기분은 당연히 나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된다거나 밤에 잠에 들기 무섭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는 혐오 표현으로 봐야 한다. 규제에 대한 측면은 크게 혐오 표현을 크게 개인에게 오는 일시적인 표현과 선동적인 표현으로 나누었을 때, 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모욕죄와 명예 훼손 죄가 성립되지만, 선동적인 표현과 특히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성적 지향 등에 기한 표현들은 형을 높여야 한다.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훨씬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념적 지역적인 혐오 표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소수자 집단이 또 다른 소수자 집단에 대해 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p>		

세션명	워크숍9.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우리가 바라는 미래사회		
일시	2018.07.05(목) 15:15~16:45	장소	서울창업허브 세미나실 4
참석자	사회	최은창 (Free Internet Project, 펠로우)	발제
	패널	구본권(한겨레신문, 기자) 김평호(단국대학교, 교수)	이동만(KIGA, 위원장/ KAIST 교수) 윤정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요약 내용	<p>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넓은 범용성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 아래에 놓여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은 프라이버시 문제, 윤리적 가치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사회적 혼란, 사회적 양극화 심화 등 다양한 위험과 문제를 내포한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활용수준에서만 이루어져왔으며,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어떤 것일까? 바로 관련된 모든 주체의 관점과 이해를 반영한 거버넌스 모델이다.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 체제로 이루어진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 또한 결국 기술에 대한 지식과 투자할 재원을 갖고 있는 소수를 중심으로 형성될 위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인공지능에 적용할 때 디지털 시민의식을 기본 의무로 전제해야 하며, 디지털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관련 주체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고 통제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p>		

세션명	튜토리얼1. 인공지능과 오픈 데이터 (부제: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만나야 합니다.)		
일시	2018.7.5. (목), 11:00~12:30	장소	서울창업허브 IR 미디어룸(2F)
참석자	사회	오원석(사단법인 코드, 이사)	발제
	패널	이명진 ((주)리스트, 기술이사)	
		엄재홍(SKT, 매니저)	
요약 내용	<p>인공지능 기술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다. 서비스를 구상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량의 데이터를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필요한 기반 데이터를 얻는 데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한다. 양질의 데이터의 경우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형 기술 플랫폼들이 자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얻고 있기에, 접근하기 어렵고 공개된 데이터의 경우, 가공되지 않거나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으로 제공되어 데이터 정제에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드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제된 데이터의 경우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공유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내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국외에서도 다양한 오픈소스 데이터셋을 통해 알고리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올리고 공정한 AI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향후 깃허브와 같은 코드 공유 커뮤니티처럼 데이터 차원에서도 공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p>		

세션명	튜토리얼2. 블록체인과 커먼즈 생태계		
일시	2018.7.5.(목) 13:30~14:30	장소	서울창업허브 IR 미디어룸 (2F)
참석자	사회	윤종수(법무법인(유) 광장)	발제
	패널		
요약 내용	<p>1. 블록체인</p> <p>(1) P2P 네트워크의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의 end-to-end 원리의 구현 - 블록체인의 등장 <p>(2) 블록체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된 공개장부 - 핵심요소 <p>블록체인의 핵심 : P2P 네트워크</p> <p>암호화 기술 : 공개키 기반 디지털서명, 해쉬함수(주소)</p> <p>분산합의 : PoW(작업증명), PoS(지분증명), DPoS(위임된 지분증명) 등 “skin in the game”</p> <p>분산장부 : 참여자들의 검증, 동일한 기록보관</p> <p>(3) 블록체인의 장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점 : 투명성, 불변성, 신뢰성, 보안성, 비용절감, 효율성 - 단점 : 속도, 비효율성, 비가역성, 보안취약점(거래소) <p>2. 토큰화</p> <p>(1) 암호화폐(가상화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가상화폐 <p>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지불결제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화 된 가상화폐 등장 <p>암호화폐 - 암호화된 디지털 가상화폐</p> <p>발행기관이 없어 블록체인 기술 사용</p> <p>3. 토큰 경제</p> <p>(1) 이더리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결제기능에 국한된 비트코인의 한계 극복 		

세션명	튜토리얼3.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활용		
일시	2018.7.5.(목) 14:40~15:40	장소	서울창업허브 IR 미디어룸 (2F)
참석자	사회 이진욱 (GP3 Korea)	발제	
요약 내용	<p>2016년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Blockchain)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가상화폐와 그 기반기술 블록체인에 심취되어 투자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p> <p>보안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지닌 신뢰 기계(Trust Machine)이라 불리는 블록체인은 주식시장, 해외송금, 결제 서비스에서부터 국제 물류, 제조, 사회문화 영역까지 적용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p> <p>특히 미국, 중국, 싱가포르, 호주, 케냐 등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공공영역(Public Sector)에서 블록체인 실험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 시간에는 공공영역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신원정보 관리(Identity Management), 전자투표(e-voting), 자산의 등록(Asset Register), 세금(Tax),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등 세부 분야로 나누어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한다.</p>		

세션명	튜토리얼4. 스타트업 - 2018 트렌드&이슈 살펴보기		
일시	2018.7.5.(목) 15:50~16:50	장소	서울창업허브 IR 미디어룸 (2F)
참석자	사회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발제	
요약 내용	<p>스타트업 : 2018 트렌드 & 이슈 살펴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을 살펴봐야하는 이유 <p>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 인터넷의 출현과 o2o의 시작 컨텐츠 쪽이 디지털로 들어옴 전통산업영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영역도 컨텐츠로 들어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 <p>혁신적 스타트업들이 기존 산업을 해체</p> <p>유니콘 기업의 등장과 성장 유니콘 : 시가총액 1조원 넘긴 기업들</p> <p>스타트업을 하기 쉬어진 세상 낮은 비용, 인프라 구축 불필요, 글로벌 플랫폼 활용, 소셜미디어 시대,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의 등장</p> <p>-2018 스타트업 트렌드 & 이슈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벤처펀드 규모 및 투자금액의 지속적 확대</p>		

4. 행사 평가

1) 참석자 통계

- 참석인원 : 195명(사전등록 169명/410명(87%), 현장등록 26명(13%))
 - 학계 28명(14%), 산업계 48명(25%), 시민사회 22명(11%), 기술계 11명(6%), 공공계 26명(13%), 일반이용자 60명(31%)

2) 만족도 조사결과

1. 설문 참여자 분포 (총 73명 응답)	공공계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기술계	이용자
	24.6%	9.5%	36.9%	17.9%	8.2%	17.8%
2. 한국인터넷거버넌스 포럼 참여 경험	있음	17.8%				
	없음	82.2%				
3. 워크숍 만족도 (오전 세션)	워크숍			내용 유익성	시간 적절성	
	워크숍 1 (7명 응답)			100%	85.7%	
	워크숍 2 (14명 응답)			78.5%	71.4%	
	워크숍 3 (12명 응답)			75%	75%	
	투토리얼 1 (34명 응답)			85.2%	85.2%	
4. 워크숍 만족도 (오후 세션)	워크숍 4 (10명 응답)			80%	90%	
	워크숍 5 (12명 응답)			83.3%	75%	
	워크숍 6 (18명 응답)			77.7%	72.2%	
	투토리얼 2 (32명 응답)			87.5%	84.3%	
5. 워크숍 만족도 (오후2 세션)	워크숍 7 (16명 응답)			68.7%	81.25%	
	워크숍 8 (11명 응답)			54.5%	54.5%	
	워크숍 9 (13명 응답)			76.9%	61.5%	
	투토리얼 3 (13명 응답)			76.9%	84.6%	
	투토리얼 4 (18명 응답)			88.8%	94.4%	
6. 행사장 및 서비스 만족도	행사장 시설 (67명 응답)		91%			
	진행 및 서비스 (67명 응답)		85%			
7. 기타 의견	-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Tutorial 부분이 특히 좋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체인에 대해 실제 활용사례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고 내년에는 에너지 분야 현업에 계신 분도 모시면 좋겠음 - 좌석준비가 미비하였으며 세미나실 위치선정이 아쉬웠지만 전반적인 내용은 만족스러웠음 - 사전등록 혹은 포럼 홍보 시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해주면 좋겠으며, 시설, 패널, 점심, 커피 등은 매우 만족스러웠음 - 『혐오발언과 표현의 자유 사이』 워크숍은 현재 무슬림이나 난민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장이었음 다만, 혐오표현에 대한 Insight가 없는 상황에서 발제를 좀 더 다루고 토의를 진행했으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준비된 강의 내용보다 주어진 시간이 모자랐으며, 강의 공간이 작았음 - PPT 화면 등을 청중에게 더 잘 보이도록 하면 좋겠음 - 패널 중 목소리가 크신 분이 발언권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 해결 필요, 사업자 입장에서의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의견도 수렴 필요 예를 들면 디지털 언론관련 부분에서는 언론사 등 정보보호에서는 관련업계.. 각자의 시각이 다르므로 다른 시각제공이 필요 - 망사용료 관련 워크숍의 경우 발제 내용이 일반인들에게는 유익한 것으로 보이나 관련 업계 사람들에게는 뻘한 내용들이 많았음 좀 더 주제에 Focus된 발제가 필요하고 일부 내용 전문성이 부족해 보임 - 정부기관의 참여가 부족해 조금 아쉬웠으며, 패널 명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음 - 한자 도메인 관련 패널 편향이 심각(4:1, 여론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구성)하여 추후 논의 시 균형 있게 바람 / 워크숍9 인공지능(AI)의 경우 진행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음 - 인터넷의 근간인 네트워크에 대한 4차산업, 즉 한국의 기존 성장 기반인 제조 산업에 어떠한 환경과 접목해야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실질적인 접근의 토론이 필요해보임 - 워크숍 내용과 관련된 팸플릿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음 - 워크숍4의 경우 패널의 수준이 너무 낮았음 전혀 발전적이지 않은 논의들만.. 워크숍7은 전반적으로 구성이 미흡 (발제자의 역량 및 패널 구성이 편향적) - 여러 세션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안내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가 마음에 남음 - 토티orial3의 공공영역의 블록체인 활용은 내용을 충분히 발전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흥미유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음 - Q&A 시간이 더 필요한 듯 - 향후에도 이 장소에서 포럼이 열리길 바라며, Key note speech 없이 간략한 코멘트로 진행된 개회식이 독특했음
--	---

3)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 2018 KrIGF 평가(온라인)

- (장소)

- ▶ 층이 분리되어 포럼이 진행되는 경우, 스태프 또는 서포터즈가 상주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행사장소 특성상 다양한 자발적 참석자(스타트업)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음
- ▶ 장소가 여러 층으로 분리되어 이동이 복잡하여 아쉬움
- ▶ 각 층이 분리되어 있어서 기념품 수령 등 어려운 점이 있었음
- ▶ 행사 참석자간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이 따로 마련되었으면 함

- (워크숍)

- ▶ 워크숍이 패널 위주로 진행되어 플로어와의 자유토론 시간이 부족함
- ▶ 워크숍 주제들이 흥미롭고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잘 구성됨
- ▶ 패널이 적은 워크숍의 경우 플로어와의 토론시간이 길어져서 좋았음
- ▶ 발표자/토론자의 명패의 개선이 필요함
- ▶ 세션별 Q&A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 플로어와의 조금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리배치를 스크일식보다는 U자형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KrIGF 행사준비 및 후속작업 등)

- ▶ 페이스북 또는 KrIGF 웹사이트 등 참석자 그룹을 만들어 워크숍 이후에도 특정 이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함
- ▶ 개회식 때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던 점이 좋았음
- ▶ 패널 및 참석자들에게 생중계 촬영에 대한 사전 고지가 필요함
- ▶ 행사가 끝난 후 랩업 세션을 구성하던지,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 모일지에 대한 사전 공지가 필요함

○ 2018 KrIGF 평가(오프라인)

- (장소)

- ▶ 서울창업허브 장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
- ▶ 워크숍 장소와 토틀리얼 장소의 층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음
- ▶ 식당에서 식사할 때 메뉴 선택을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음
- ▶ 내년 KrIGF를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할 시 식당에 메뉴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워크숍)

-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거버넌스라는 아이디어를 공유하자는 의미로 여러 거버넌스(환경 거버넌스, 오픈데이터 거버넌스 등)와 연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되었으면 함
- ▶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면 모든 워크숍에는 이해관계자가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함
- ▶ 토틀리얼에서 진행되었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었던 주제를 내년에 거버넌스 형태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길 바람

- (KrIGF 행사준비 및 후속작업 등)

- ▶ KrIGF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기사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오픈하여 워크숍 공모를 하더라도 공모자들은 그룹 내에서 나오고 평가 하는 것으로 인해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음
- ▶ 다양한 그룹들에게 워크숍 제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패널로 구성하기 위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함
- ▶ 각 멀티스тей크홀더의 의장을 정하여 의장을 통해 패널 섭외에 대한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제7회 KrIGF 참석자들의 메일링리스트(KrIGF_Discuss)를 통하여 내년 KrIGF 및 거버넌스 정보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참석자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작성한 워크숍에 대한 의견을 각 제안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각 워크숍별 보고서 정리하는 작업 진행 후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영문화 작업이 끝나면 국제 IGF에 제출 예정

- ▶ 올해 말쯤 내년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 같고,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특정 영역 분야에 대해 간략한 발제를 통한 스터디 필요

5. 결산

항목	세부항목	수량	단가(원)	예산(원)	비고
행사장 임대료	대회의실/세미나실 1,3,4/IR미디어룸	5실	-	-	서울창업허브
패널 교통비	세션 패널 교통비 (지방 거주자에 한함)	15명	100,000	1,500,000	
인건비	생중계 담당자 인건비	1식	-	1,540,000	
	서포터즈 지원비	6명	200,000	1,200,000	교육일 포함(2일)
	현장 지원인력	15명	150,000	2,250,000	교육일 포함(2일)
	행사 전담인력	1명	900,000	900,000	1개월
	보고서 번역비	1식	-	1,000,000	예정
장비임차	노트북 대여	5개	200,000	1,000,000	
식대	참가자 중식	400식	7,500	3,000,000	
	임원 및 패널 저녁	1식	-	414,000	
기념품	참가자 기념품	400개	-	5,200,000	
주차권	참석 패널 주차권	45장	15,000	675,000	
홍보 및 홍보물 제작	온·오프믹스, 현수막, 배너, 포스터 등	1식	-	3,899,000	
다과 및 음료	다과 및 음료 지원	1식	-	979,000	
사무용품	명찰, 문구류 등 준비	1식	-	1,527,500	
예비비	도메인연장, 콜밴 등	1식	-	626,500	
총 소요예산				25,711,000	

※ 후원 현황: 법무법인 한결(100만원); 가비아(100만원); 네이버(250만원); 카카오(250만원) = 700만원

6. 사진





[별첨 1] 프로그램위원회 회의록
[별첨 2] 워크숍 세부 내용 및 논의 사항